

사회윤리학적 문제로서의 자살과 그 예방에 관한 연구

김 홍 진

(천안외국어대학 교수)

I. 서론

II. 대학생들의 자살 인식과 요인

1. 자살에 대한 인식
2. 자살에 대한 요인 분석
 - 1) 자살충동의 심리적 요인
 - 2) 자살충동의 사회적 요인
 - 3) 자살충동의 실존적 요인
 - 4) 자살충동의 정신의학적 요인

III. 생명존엄을 위한 윤리교육

1. 실존의식 교육
2. 생명존엄 교육
3. 가치관 교육
4. 죽음 교육

VI. 결론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사회적 문제로서 대학생들의 자살 충동 요인 분석과 이에 따른 예방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대학생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리적, 사회적, 존재론적, 정신의학적 자살충동요인을 분석했다. 설문결과로 보면 자살충동 원인으로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35.8%)가 가장 많았다. 우울증 외에 학우들이 꼽은 자살 원인은 인간관계(16.3%), 가족 간의 불화(14.0%), 성적(6.5%) 카드 빔 등 경제적 빈곤(5.1%), 취업(3.2%) 등이 있었다.

구체적인 요인으로써 심리학적 원인은 죄책감, 사랑의 상실감으로 인한 비통함, 미움, 분노, 절망, 자존감 상실로 인한 자학, 이중적 감정,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의 탈출하지 못하는 절망, 비이성적인 사후관 등이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학업성취의 문제, 가정파괴, 가난문제, 가정의 병리학적 문제, 자살수단에 쉽게 노출된 환경 등이 있다. 존재론적인 요인으로는 삶의 의미와 의지의 상실문제로 인하여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의학적인 요인으로는 정신병, 우울증, 만성적 질병, 충격 조절 능력의 상실, 스트레스, 곤고함, 피로 등이 있다.

그러므로 자살충동요인에 따른 예방교육으로써 존재의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존재의식의 결여는 자살충동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생명의 존엄성 교육, 가치관 교육, 죽음 이후의 세계관 교육이 필요하다. 특별히 진지하고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우리의 교육에 죽음 교육의 필요성이 절박하다.

주제어: 사회윤리, 자살, 생명교육

I. 서론

영화 ‘4인용 식탁’에서 주부들은 창 밖으로 몸을 던지고 ‘여우계단’에서 여고생은 목을 매단다. 비단 영화에서 뿐만이 아니다. 메스컴에서는 자살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2~3년 동안 집계된 자살 통계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2000년 자살자수는 11,794명, 2001년 12,277명으로 꾸준한 증가와 함께 2003년 8월 5일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자살건수는 13,055건으로 2001년 자살한 사람의 숫자¹⁾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50% 이상 많았다고 전한다. 서울 소방방재본부 구조팀의 2003년 상반기 자살관련 출동 건수만 해도 199건으로 2002년 같은 기간의 151건에 비해 30% 가량 증가했다.

이런 자살자수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는 ‘자살사이트와 세계자살증가율 1위’라는 불명예를 다시 안게 되었다. 자살률은 흔히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로 비교된다. 대개 10만명당 자살자수가 10명을 넘으면 자살률이 높은 축에 든다. 1996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10만명당 자살자수는 19.2명이었다.²⁾ 전통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여 온 헝가리, 필란드, 덴마크 등에 비하면 낮지만, 동양권에서는 가장 높은 세계적으로도 10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런 사회적 문제 속에서 자살충동과 행위의 요인들을 밝혀 보고 잠재적 자살가능성이 항상 상존하는 대학생들을 돕는 예방 교육적 방안으로써 생명교육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자살의 심리적, 사회적, 실존적, 정신병리학적 요인들을 알아보고, 대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예방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1) OECD 기준에 따라 사고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죽은 경우만 포함한 수이다.

2) 2002년 자살률은 하루 평균 36명이며 이는 매 시간당 1.5명이다.

II. 대학생들의 자살 인식과 요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살을 자살행위로 인하여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로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Durkheim은 자살을 ‘피해자 자신이 일어날 결과를 알고서 행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동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죽음의 사례들’이라 정의했다.³⁾ S. Freud는 자살이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죽음 본능의 활동요소가 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했다.⁴⁾ Jung은 생의 모든 의미를 상실했다고 사무치게 느끼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재생을 갈구하는 무의식적 소원이 자살과 관계된다고 했다.⁵⁾ 이런 자살에 대한 대학생들의 자살 이해와 그 요인들을 분석해 보겠다. 다음은 대학생 4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⁶⁾를 근거로 자살에 대한 인식과 그 원인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1. 자살에 대한 인식

대학생 452명 가운데 202명(44.7%)이 자살하는 사람을 인정했다. 그들 중 250명(55.3%)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자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44.7%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살에 대한 동정심이 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런 자살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정신적 스트레스(51%), 생활고(20.9%), 인명경시 풍조의 만연(15.9%), 모방행위(6%) 순이었고, 기타 의견으로는

3) E. Durkheim, *Suicide : A Study in Sociology*(1975).

4) S. Freud. *Mourning and Melancholia*(1917).

5) W. W. K. Jung, *A Self-Rating Depression*(1965).

6) 2003년 봄학기에 대학생 452명을 설문조사했다(충대신문 제808호. 6, 7면).

정신의 나약함, 냉정한 사회 분위기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자살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454명중 184명(40.5%)이 자살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고, 270명(59.5%)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대학생들이 자살 충동을 일으킨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자살 충동의 빈도는 한두 번 정도(42.6%), 아주 드물게(26.9%), 가끔(18.8%), 때때로(7.1%), 매우 자주(4.6%) 순으로 나타났다. 의미 있는 통계는 411명중 21명(5.1%)이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자살사이트에 방문하거나 가입을 한 적이 있는 학우도 439명중 12명(2.7%)이었다.

2. 자살에 대한 요인 분석

자살충동을 느낀 184명중 그 원인으로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35.8%)가 가장 많았다. 우울증 외에 학우들이 꼽은 자살 원인은 인간관계(16.3%), 가족 간의 불화(14.0%), 성적(6.5%) 카드 빚 등 경제적 빈곤(5.1%), 취업(3.2%) 등이었다. 이러한 자살은 심리적, 사회적, 실존적, 정심병리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충동을 일으키고 있다.

1) 자살충동의 심리적 요인

자살한다고 위협하는 사람 중에 10%정도는 자살을 한다고 한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80%정도는 자신의 자살의도를 밝힌다.⁷⁾ 그들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아끼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행동을 통해서 자살 의도를 밝힌다고 한다.⁸⁾

자살하는 사람 중에 죄책감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청소년들 중에 자살 하면서 남긴 유서에 보면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

7) 브랜트(1988)는 자살한 청소년들 가운데 83.3%가 자살하기 며칠 전에 자살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는 것을 발견했다.

8) 박상철 외, ‘청소년 동반자살’,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8.

우가 많이 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죄책감이 많다. 특히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심하게 자책함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순간의 충동으로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치밀한 논리와 심사숙고를 한다.⁹⁾

J. C. Smith와 Aimann은 모든 인간은 ‘삶의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희망이며 신념체계이다. 이 삶의 환상이 무너질 때 수치심을 가진다. 여학생의 경우 육체적 순결을 잃어버린 자신에 대해 자살충동을 일으킬 수 있다.¹⁰⁾

자살하는 자에게는 현실에 대한 도피심리가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자살을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 혹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리며 현실과 연결된 곳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그에게는 더 좋은 재생의 사후관으로 인한 도피심리가 작용될 수 있다.¹¹⁾

또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자살할 수 있다. 지나치게 강한 공격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밖으로 표출하면 살인이 되고, 양심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억제되면 우울이 되고, 그 공격심을 자신에게 돌리면 자살이 된다. 프로이드는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1920)¹²⁾에서 증오심과 복수심이 자살로 변하게 되는 심리적 메카니즘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사랑의 상실로 인하여 자살충동을 일으킬 수 있다.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는 실연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들의 심정을 보면 이별 후에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³⁾ S. Freud(1986)는 이미 자아와 동일시 된 떠나버린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자신을 향해 자살

9) 송영미,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요인과 예방교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9p.

10) 위의 책, 10p.

11) 위의 책, 13p.

12) S. Freud, *Beyond the principle of Pleasure*(1920)

13) <http://earth.interpia98.net/~881004>

충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했다.

절망감은 자살을 일으킬 수 있다. 절망이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다. 구본영은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자살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었다.¹⁴⁾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으면서 자살 충동을 갖는 자는 인지협착과 양가적 감정을 겪게 된다. 인지협착(cognitive constriction)이란 자살자들은 사고의 유연성이 저하되어 자살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터널시각(tunnel vision)이라고도 한다. 그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논리가 작용한다. 그들은 협소한 문제해결방식으로 답답해한다. 이런 궁지에 몰리면 자살충동을 일으킬 수 있다. 양가적 감정(ambivalence)이란 인간의 인격은 상반되는 감정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사랑과 미움, 삶과 죽음의 욕구가 공존하는 상태를 들 수 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의식적인 사랑의 감정 배후에는 억압되어 있는 미움이 있으며, 이것이 무의식 속에 남아 불안을 일으킨다고 한다. 자살자들은 자기 목을 조르면 서도 동시에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2) 자살충동의 사회적 요인

자살의 사회적 주요 요인으로는 실업, 신용불량자로의 전락, 사업실패 등 경제적 이유에서 오는 자살이 늘고 있다. 상대적 빈곤감에 의한 자살은 IMF 외환위기로 경제상태가 최악에 이르렀던 1998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당시 12,458건에 이르렀던 자살 건수는 경기가 회복된 1999년 11,713건으로 줄었다가 1998년 이후 더욱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지금 시기에 자살률은 다시 늘어나고 있다.¹⁵⁾ 이것은 경제적 빈곤격차에서 오

14) 구본영, '청소년 자살연구', 청소년 대화의 과장, 1994.

15) 충대신문, 제989호, 7면.

는 상대적 빈곤감으로부터 오는 일반적인 도피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적 빈곤감은 정신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의 상실에서 온다.

Durkheim(1897)은 자살이 개인적 행위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의 특정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가 심한 아노미현상을 겪으면서 사회적 결속력이 약해져 자살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가족, 종교 단체 혹은 여타의 사회그룹과 강한 유대는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Durkheim은 주장했다. 그는 자살현상을 크게 이기적, 이타적, 아노미적 자살로 구분하였는데, 이기적 자살이란 개인주의 경향으로 사회 그룹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개인 간에 응집력이 강하고 사회 유대관계가 형성된 사회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치료의 효과를 유발한다. 그러나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이러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소외된다. 주변 사람들과의 정적 유대의 단절로 인해 고독하고 소외되어 있으며 최후의 순간 죽음의 충동과 삶의 충동의 갈등 속에서 한 가닥 구원마저 호소할 곳 없는 상황에서 결행으로 옮겨진다.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주고 받는 친근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무도 그러한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자살의 충동요인 중에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므로 평소에 외톨이로 있으며 조용하고 말이 없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소위 왕따로 불리는 청소년들 중에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왕따는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그가 속한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서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행위를 이야기한다. 이런 현상은 청소년에도 있지만 성인 대학생들에게도 일어난다. 양상은 따돌리는 특정인과 대화

하기를 거부한다든가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거나 모함을 한다거나 혹은 은근히 혹은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어서 힘 있고 우월한 사람만이 인정받고 부족한 사람은 패배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현실에서 어느 순간에 자신이 패배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가지게 된다. 자기 스스로 패배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면 더 이상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살의 사회적 원인 중에는 학업성적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한다. 서울 시내 재학생 1,104명을 조사한 결과 30%가 성적 때문에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 충동까지 느낀 경험을 갖고 있다고 했다.¹⁶⁾

또한 가정의 파괴와 가난, 그리고 가족의 병리적 요인에 의해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자살한 학생 중에 44%가 가정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¹⁷⁾ 부모의 이혼, 가난, 그리고 가족 중에 정신병, 알콜 중독증 등 자살의 원인이 가족 내에 있는 것이 많다.

이런 사회적 요인이 많이 있는 것에 가중되는 것은 자살수단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독성물질의 경우 전체 자살자의 20.1%로 가장 높다. 그리고 대중매체의 자살에 대한 진술은 또 다른 자살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띄워진 자살방법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쉽게 자살방법을 가르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¹⁸⁾

3) 자살충동의 실존적 요인

자살을 시도하는 요인 중에 실존주의적 요인에 기인한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인간은 죽는다는 인간 실존에 대한 삶의 의미와 의욕을 상실하고 괴

16) 송영미, 위의 책, 37p.

17) 한국교육신문, 1998. 5. 6.

18) <http://user.chollian.net/%7Eeum0830/main/free/comp/03/03.htm>

로워하는 이들이 많다. Albert Camus와 Jean-Paul Sartre는 실존적 자살관을 잘 대변한다. Albert Camus는 『시지프스의 신화』¹⁹⁾에서 인간의 삶은 부조리하기 때문에 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Camus는 부조리란 삶의 궁극적 본질이며, 인간은 이 부조리를 축하하며 살아야 한다고 고백한다. 숙명적 부조리에 대한 자각은 우리를 거짓된 희망이나 삶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때문이다. Camus는 자살행위는 진리를 회피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보았다. 그의 실존주의적 삶이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부조리를 잊지 않고 끌어안으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지고한 덕이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Camus와 같이 실존주의 철학을 대변하고 있는 Sartre는 『존재와 무』(Being and Nothingness)²⁰⁾에서 인간은 두 가지 존재의 유형을 가지고 산다고 말한다. 그것은 ‘존재’와 ‘무’이다. 이 둘은 인간의 현실을 구성하고 있다. 즉 인간은 하나의 사물체(Being-in-itself)로서 뿐 아니라 의식(Being-for-itself)으로써 존재한다.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이 대립은 실존적 갈등을 유발한다. 그러나 Sartre는 이 대립 속에서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이중적 존재야말로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즉, 인간에게 의미와 자유를 주는 요소라는 것이다. Sartre는 ‘자살은 나의 삶을 부조리 속으로 침몰시키는 부조리이다’라고 말하며 자살을 부정하였다. 자살은 삶을 결코 의미 있게 하지 않으며 자연사보다 더 의미 있는 죽음이 될 수 없다. 인간이 자살할 수 있는 자유와 주어진 삶에 모든 책임을 다하는 자유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상태야말로 실존적인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Sartre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생과 사의 결정권이 인간으로써의 존재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존주의는 보통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자살을 예찬하지 않는다. 실

19) Albert Camus, 이가림 역, 『시지프스의 신화』(서울 : 문예출판사, 2001).

20) Jean-Paul Sartre, *Being and Nothingness*(1943).

존주의자들은 단지 자살자들이 경험하는 혼란과 방향을 병리적 현상이나 피해야할 것으로 보지 않았을 뿐이다. 그들은 자살이 인간의 부조리한 모습과 참 실존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실존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면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 무의미의 위험은 자신을 포기할 수 있다. 인간은 ‘내가 누구이며,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끊임없는 사색에 잠긴다. 필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 흔히 말하는 복지정책이 잘 되오 잘 사는 나라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이래서 이다. 이처럼 선진국이 자살률이 높은 것은 물질적 풍요로움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뚜렷한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살면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의 상실, 의미의 상실, 보람의 상실, 가치의 상실 속에서 자살은 일어난다.

자기개념의 상실은 자학과 연결되며 자살충동의 위험을 증폭시키는 요소이다. 자학이나 무가치감은 많은 유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²¹⁾ 자기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정서적 평가의 합이다. 자기존중감이 낮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자기를 포기하기까지 이를 수 있다.

4) 자살충동의 정신의학적 요인

정신질환은 자살행위의 주요위험요소이다. 대체로 자살자의 70-80%가 정신질환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생들의 자살충동을 느낀 184명중 그 원인으로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35.8%)가 가장 많았다. Barraclough와 Hughes는 100명의 자살자들에 대한 발생학적 조사를 하였다. 그들 가운데 70%정도가 심한 우울증상을 보였으며 10%는 그 밖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own의 연구서는 경계성 인격장애

21) 송영미, 앞의 책, 22p.

가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아동기에 심한 육체적 성적 학대를 받았거나 가정이 불우한 경우에는 우울증과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자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신병적 요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원인으로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서술하고 있다.

우울증 삽화(major depressive episode)는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DSM-IV(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은 주요 우울증 삽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주요 우울증 삽화의 필수 증상은 적어도 2주 동안의 우울 기분 또는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다. 우울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그 속에 깊은 상처와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울 과정 속에는 학대와 희망감, 질책과 비평, 버려진 듯한 상실감, 그리고 자해, 자살 등의 혼상이 내포되어 있다. 우울증에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의 한계를 넘으면 자살행위를 할 수도 있다. 청소년기에는 가면우울증이 있다. 타인에게 울적하고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싫은 심정에서 때론 가장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대학생기에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발달이 성인 수준에 이르러 현실 검증력과 양심 등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우울증은 말이나 기분, 행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출된다.²²⁾ 또한 이들은 이러한 우울증상을 약물남용, 무절제한 성행위, 고립, 자살 등의 부적응적인 행동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우울증 환자들이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 외로움이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도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세상에 적응하려는 노력이나 야망 없이 가족 또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 반사회적 집단활동에 몰입함으로써 무능감이나 외로움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22) 송영미, 위의 책, 48p.

S. Freud는 『애도와 우울』에서 자살이란 자신이 동일시한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 공격이라고 기술했다. 한 인간이 사랑과 증오의 상반된 감정은 영구히 그 상실한 대상에 대해 추모하는 심정으로 남지만 증오하던 감정은 그것에서 떨어져 나와 이제는 방향을 돌려 자기 자신에게로 오는 까닭에 결과로 그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 즉 공격욕 또는 무의식적 가학성이 자신에게로 방향전환을 한 상태가 우울증이다. 그리하여 ‘나는 가치가 없는 놈’, ‘나 같은 자는 죽어야 한다’는 심정에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는 ‘내가 나를 죽이는’ 자살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살충동의 생활사를 조사해 본 결과 자살충동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총체적인 면들이 작용하여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의 요인들을 다음의 여섯 가지 속에 정리할 수 있겠다.²³⁾ 첫째는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자살이다. 경제위기 이후 실직, 파탄, 카드 빚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위 딜레마 상황에서 문제해결 방법으로 죽음으로써 도피해 버리는 경우이다. 둘째는 보복심리에 의한 자살이다. 꾸중에 대한 반발로, 교사의 추궁에 대한 결백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에 의한 발로로써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도 고통을 당해보라는 보복적 내면심리가 있다. 셋째는 자기 응징으로서의 자살이다. 인생의 어느 중대한 사항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서 자신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살 전 우울증에 빠져 있고 또 편집증 경향을 보인다. 넷째는 욕구 좌절에 의한 자살이다. 자신의 욕구가 좌절 시에 마치 세상에 갇힌 새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 창살에 머리를 부딪치는 행동과 유사하다. 다섯째는 저승에서의 재결합을 위한 자살인데 현실생활의 좌절과 불행에 지친 나머지 차라리 먼저 간 가족 친지를 저 세상에서 만나 행복하게 살자는 환상에 사로잡혀 감행하는

23) 이진영, ‘자살의 정신의학적 측면’, 충대신문, 제989호, 7면

자살이다. 여섯째는 재생을 기약하는 자살로서 인생의 모든 의미를 상실하였다는 강한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 재생을 바라는 무의식적 소망에서 자살하는 것이다.

III. 생명보존을 위한 예방교육

자살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책 중에 하나는 예방이다. 자살에 대한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살예방책으로 종교 갖기, 보람된 일 찾기, 생명존중사상, 정부의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마련 등이 나왔다. 다음은 대학교에서 있어야 할 자살예방교육으로써 몇 가지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실존의식교육

자살원인에서도 알아보았듯이 인간의 자아정체감의 상실, 삶의 의미의 상실, 생의 의지의 상실, 존재의식의 혼돈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는 자가 있음을 알아보았다. 자살의 예방교육으로써 실존의식교육의 필요성을 예고한다.

실존의식교육은 '자기 인식' '자기 책임' '자기 행동'을 포함하는 '자기 존재'의 상을 구축하는 것으로 '실존의식'을 갖게 한다. 이때 필연적으로 사람은 스스로의 존재가 광대한 별판 위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외로운 존재임을 알게 된다. 이는 '주체'를 발견한 이들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고독이다. 그들 중에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서는 것을 포기하며 결국 이로 인해서 자살을 할 수 있다.

인간은 실존의식을 가져야 살 수 있다. 보편적 인간성의 깊은 숙고와 함께 외부적으로 현현되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인간은

'주체의식'을 갖게 된다. 현대 필연적으로 그러한 '주체' 즉 '자기 삶' '자기 의식' '자기 행동'은 '고독'과 '자기성찰'을 부추기게 된다. 우리가 충분히 자기 자신을 직면할 용기가 있다면 '실존의식'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또한 '상대방의 실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하다면 '실존적 개인'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상적 자아실존의식이 형성된다. 실존의식은 우리 내부에 잠자고 있던 '진실'을 직관적으로 깨닫는 통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제반된 작용이 결국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의 체계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실존의식교육이 필요한 것은 개인이 삶과 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끔 하는데 있어야 하는 바 결국 '주체의 깨임'의 필요성이 있기에 실존의식교육은 있어야 한다. 깨어난 '주체'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정 내릴 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재의식을 갖는다. 삶의 문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통속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이해와 행위를 통해서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기에 실존의식은 필요하다.

실존의식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생의 철학교육이다. 근본적으로 인간 홀로의 삶은 외롭다.

가족과 친구와 연인이 항상 그 옆에 있더라도 우리는 결국 우리만의 길을 걸어야 함에 그 빠져진 외로움은 주체할 길이 없다. 그렇기만 하다면 과연 그 생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야 자살하지 않는다. '나' 자신의 생명의 의미를 관조하게 될 때 인생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운명 지워지는 그것이 될 것이다. 또한 필연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확인은 '나 이외의 것'과의 간절하고도 참다운 합일의지로 이어질 것인데 이러하다면 이때 기독교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의 근원,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가치, 생명의 주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나의 실존은 하나님의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며, 나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존재한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존재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자살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2. 생명존엄교육

대학생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명경시풍조가 자살을 방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귀중함, 생명의 소생불가능성, 생명의 단회성,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 생명의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은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팽배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귀중하게 관리해야 함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인간생명의 존엄성은 단지 생명의 존엄성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결부된다. 퇴색된 인간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새롭게 회복시켜야 한다. 이 인간생명교육은 자살충동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생명교육은 낙태와 인간복제, 그리고 인체장기매매 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답을 제공한다. 생명복제 실험과 특허출원 등에 관한 사태로 생명 존엄성의 파괴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경시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기독교사회윤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존에 맞춘 생명윤리를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생명존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했다.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깨우치는 것이다.

현실 안에서 생명존엄성과 신성 불가침성을 강조하는 교회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살의 원인이 사회적 모순에 대한 원망과 생명 경시 풍조가 맞물려 발생하는 것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에서의 공동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 생명의 보루인 교회는 교회 내외적으로 생명교육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대 사회적인 생명 존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필요가 있다.

생명교육의 내용으로는 생명존중과 윤리, 생명존중의 의미, 의의, 현실을 가르쳐야 한다. 생명의 의미로는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신성하다.’ 이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 생명의 의의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며, 도덕성의 기본 바탕이 됨으로, 그리고 모든 학문과 삶, 의 기본 가치임을 가르쳐야 한다. 생명존중의 현실로는 생명경시 풍조의 대두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어야 한다.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하게 된 이유는 정신적 가치의 전도와 황금만능주의, 대중매체의 해악성, 상업주의(성의 상품화), 생명존중의 가치의식 약화와 교육의 부재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존중사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은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인식이다. 거룩한 생명, 존귀한 생명을 항상 해침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을 그르친다.

3. 가치관 교육

자살의 원인으로는 건전한 인생의 가치관의 혼돈에서 올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자아관, 사람에 대한 인간관, 삶에 대한 인생관, 사랑관 등의 혼돈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한다. 이로 인하여 가치관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 할 때 자포자기와 우울증 더욱 심해지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은 예방교육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가치관 교육은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고 소중함을 알게 하며 인생관의 설정에 도

움이 된다. 이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수용 능력이 배양되며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심화된다.

왜 가치관 교육을 강조하는가? 인간은 가치를 삶의 바탕으로 하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만약 인간이 성장하면서 바람직하고 잘 정돈된 가치 체계를 그의 삶의 바탕이 되게 하는 일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그 자신과 사회에 파괴적인 요소가 되고 만다. 현대처럼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혼돈스런 가치관 속에서 살면서 바른 가치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바른 가치관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바른 가치들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위한 가치관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들을 제공하는 일은 모든 교육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McCoy에 의하면 청년기에 들어오면 급속히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스스로의 힘과 판단 그리고 책임하에 행동하려는 독립의 욕구가 강하게 작용된다.

가치관교육에서 우선된 것은 자아관이다. 자아관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체적인 지성인을 양성한다. 이로써 자아긍정감을 가지게 된다. 청년기는 자아 발견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아 발견을 긍정적이고 정상적으로 해야만 한다. 청년기에 닥치는 갈등 속에서 그들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관을 형성하도록 도와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주체적인 지성인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한 긍지를 느끼는 것, 즉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은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반대로 자기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지 못할 때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유발된다. 자기의 현재 삶과 미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이 자신에게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긍지가 자신의 성취를 이루기 때문에 자기 긍정 훈련은 중요하다. 더욱이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상대방에게 잘 알리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관계는 우선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의 주체가 되는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Powell(1969)에 의하면 성숙한 인간은 자기의 신체적 조건이나 심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좋게 받아들인다. Rogers(1970)는 자기수용을 개인의 행동변화와 자기성장의 시발점으로 보았으며, Maslow(1970)도 자기수용을 자기실현을 성취한 사람들의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적인 자아관은 자신의 공지를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을 형성하도록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선택받았고 부름을 받았으며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주도권, 성령의 절대주권적 사역에 대한 이 강한 인식이, 그들을 담대하게 하도록 해주고, 그들이 고난 받을 때 참을 수 있게 해주며, 그들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인도한다. 그러므로 자기 금지감을 심되, 성경에 기초한 금지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4. 죽음교육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는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러나 한 평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노년에 이르러 심신의 통증이나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품위를 잃지 않고 인간다운 죽음을 갖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죽음과 삶의 교육이 없다면 죽음을 비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죽음을 잘 못 이용하여 자살이라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기에 죽음의 의미와 삶의 방법을 위해서 죽음교육은 필요하다. 생의 의지는 죽음의 극복이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자세를 가진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교육은 자살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죽음교육은 곧 삶의 교육이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고통 해방의 처방은 순간 순간을 깨어 자신의 의식과 감정을 또렷이 주시하는 '각성'에 있다. 결국 자살이 절대적 해결 방법이 못되는 이유는 '죽음'은 곧 '삶'의 연장이고 '삶'에서 슬기롭게 풀어내지 못한 불행은 그 짐을 죽은 뒤에도 짊어져야 하는 엄숙한 진리 때문이다. 이 삶의 교육은 죽음의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도피해온 죽음체계(죽음에 대한 생각, 감정, 행동)와 죽음교육의 필요성, 내용, 방법,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 등에 대해서는 회피해 온 것은 사실이다. 캐나다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의 John Morgan 교수는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삶에 대한 태도도 변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Morgan 교수는 “현대사회가 인간의 죽음이 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의 실존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편견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환경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죽음교육은 청소년이나 노인의 자살예방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Morgan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기독교적 죽음교육이 필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삶을 더 깊이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삶의 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기독교적 죽음교육이 요청 된다 기독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사상은 우리의 존재가 무로 끝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그 죽음을 경솔하고 경박하게 처리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소중한 생명이기에

그 생명이 이 땅 위에서 마치는 과정 역시 올바르게 처리해 나아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죽음교육에서 가르쳐야하는 중요한 내용은 죽은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것인가? 죽음의 의미와 생을 전제로 한 죽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자칫 죽음교육이 자살을 방조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살하는 자들이 죽음에 대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자들도 있다. 죽음을 정상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도 죽음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다. 더욱이 일부 종교집단에서 내세관에 대한 잘못된 교육으로 사후에서 조우하는 식의 왜곡된 교육으로 종교를 위해서 집단 자살을 유도하거나 하는 것은 주시해야 할 문제이다. 잘못된 내세관은 죽음을 조장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 건전한 죽음 교육에는 바는 기독교적 내세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VI. 결론

지금까지 젊은이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 자살 충동 요인,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열거하고 어떻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인가를 연구해 보았다.

자살에 대한 인식에서 대학생들은 절반가량의 학생들이 자살자를 동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대학생들은 자살자들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자살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자살의 원인으로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 인간관계, 가족 간의 불화, 성적, 카드 빚 등 경제적 빈곤, 취업문제 등이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자살은 심리적, 사회적, 실존적, 정신병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충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생명보존을 위한 예방교육으로서 실존의식 교육, 생명존엄

교육, 가치관 교육, 죽음 교육을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사실 자살은 예방해야 할 문제이지 치료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자살 후에는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자살문제이든 예방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죽음을 준비시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 생명의 교육, 삶의 교육은 필연적으로 죽음의 교육과 병행해야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죽음교육에 대해서는 중국적인 죽음의 불가피성이 두려워 죽음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 죽음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올바른 죽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죽음을 미화해서도 안 된다. 아름다움 죽음과 아름다운 삶의 길을 죽음교육을 통해서 제시해야 한다.

K C I

참고문헌

- 구본영. '청소년 자살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4.
- 박상철 외. '청소년 동반자살'.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8.
- 송영미.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요인과 예방교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진영. '자살의 정신의학적 측면'. 충대신문. 제989호 7면.
한국교육신문. 1998. 5. 6.
충대신문. 제808호 6, 7면.
- Camus, Albert. 이가림 역. 「시지프스의 신화」. 서울 : 문예출판사, 2001.
- Durkheim, E. *Suicide : A Study in Sociology*, 1975.
- Freud, S. *Mourning and Melancholia*, 1917.
- Freud, S. *Beyond the principle of Pleasure*, 1920.
- <http://earth.interpia98.net/~881004>
- <http://user.chollian.net/%7Eeum0830/main/free/comp/03/03.htm>
- Jung, W. W. K. *A Self-Rating Depression*, 1965.
- Sartre, Jean-Paul. *Being and Nothingness*, 1943.

ABSTRACT

A Study on the Cause of University Students Suicide Impulse and the Preventive Education

Kim, Hong Jin

(Cheonan college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 of University Students suicide impulse in their suicide behavior as one of the social problems, and to present the necessity for the preventive education against it.

This study analyzed the psychological, social, existential, pathological causes of the suicide impulse through the reports. As the universal result, melancholia(35.8%), there are human relationship(16.3%), family discord(14.0%), studies result(6.5%), card debt and financial poverty(5.1%), lose job(3.2%).

As the concrete facts, psychological factors were guilt conscience, the grief over the loss of love, hatred, revenge, despair, the self-maltreatment due to self-identity deprivation, despair, duplicate emotion, the desire to escape from unbearable pain, irrational posthumous view. The social factors were the difficulty from interpersonal relation, the problem of scholastic achievement, family destruction and poverty, family pathology, the environment exposed easily to suicide means. The existential factors. which might mean that

human should be mortal, destroyed the meaning and will to live. The pathological factors were mental disease, melancholia, chronic disease, the deprivation to impulse control ability, stress, hunger, fatigue.

Therefore as the preventive education against those suicide impulse factors, the education on the existence consciousness is necessary because erroneous consciousness of existence have a likely effect upon the suicide impulse. Besides the education about dignity of life and the view of the worth and the education about the view of the world after death. Especially the education on death is rather urgently necessary to our education in order to lead our honest and desirable life.

K C I